

東洋道學의 體系 如何(中)

姜春山

乙 墨家

墨子

孟子가 墨子를 排斥한 以後로 學者等은 盲目的으로 此를 因習하여 墨子를 崇拜한 者- 鮮하였다. 그러나 墨子の 書を 讀한 者-면 誰가 愛國의 精神이 全篇에 貫徹하였다. 講치 안흐리 有하랴 其言에 曰『凡人國必擇務而從事焉 國家昏亂則語之尚賢尚同 國家貧則語之節用節葬 國家喜音湛則語之非樂非命 國家淫僻無禮則語之尊天事鬼 國家務奪侵凌則 語之兼愛』라 하였스니 그 著作한바는 모다 社會的 眼光으로부터 觀察된 者니라. 그리고 그 主要한 者는 即 天利, 鬼利, 人利인바 遊說의 中에 此로써 應치 안임이 無하니라.

墨子の 年代는 其說이 不一하나 吾人의 所見이 孟子의 言으로써 準據하면 孟子曰『聖王不作, 諸侯放恣, 虛土橫議, 朱墨之言, 盈天下 天下之言 不歸楊 則歸墨』이라 하였스니, 是로 由하여 觀하면 孟子當時에 在하여 楊墨의 徒는 天下에 滿하여 盛히 其說을 鼓吹한 者-라 할지로다. 然則 墨子는 孟子一代以上의 人이 될지며, 又他證據를 蒐集하여본 即 孔子沒後 四十七年頃이 될 만하다.

學說 愛-利-非命說

一, 愛이니 무릇 社會에 競爭이 生하며 戰鬪가 有함은 모다 衝突로써 吾人의 憎惡觀念에 伴한 者-라. 그럼으로 吾人의 精神內로부터 此觀念을 根本的 除却할 時는 大夫- 君을 不犯하며 子-父를 不逆하며 ฆ่า서 敵國相制의 懼가 無히 天下安寧의 幸福을 可得할지라. 然한데 今若愛와 憎과를 對立케하고 其一을 排斥하기는 到底히 能치 못한다. 何者오 하면 此兩者는 互相豫想한 것임으로 其一만 取함은 自然矛盾의 事됨을 免치 못함으로 써라.

試着하라 愛하는 一個觀念 下에서 人을 殺하고 財를 奪하여 自己를 利코 저함이 아닌가. 그럼으로 己를 愛하는 念은 如前히 存케하고 人을 惡하는 念만 取去코저 하면 到底不可의 事니라. 人을 惡하는 念을 除去코저하면 爲先

愛의念으로써 相對的되는 憎愛二觀念의 上에 立케함만 莫如하다. 詳言하면 彼와 此와를 同時에 愛하는 愛를 兼愛라 한다. 말미어 絶對의 愛는 天下로 하여금 泰平케하는 能力이 有하니 曰『天下兼相愛則治 相惡則亂』이라 하였고 又曰 愛無厚薄이라 하였스니, 想必墨子は 또한 無差別의 愛와 差別의 愛와를 情密히 區別하여 以爲하되 愛는 大小遠近의 區別이 無하야 所謂人을 愛한다 함은 普遍的으로 愛하는 者이오. 決코 彼를 愛하고 此를 愛한다 함이 아니라 그리 하야 人을 愛한다 함은 一切의 人을 愛함으로써-니 卽 普遍的의 愛는 此를 周愛라 할지라. 如斯히 若愛로써 結合하는 觀念이라 하야 無差別平等의 愛라하니 그야말로 社會는 果然 無差別이 될는지 또는 先人의 倫理法則은 如何하겠다할가. 然한 卽愛의 外에 差別의 原理가 無치 못할지니 此를 恭이라 한다. 既히 愛와 恭이 有하야 社會의 一切法則을 그에 由하여 成立할만한 基礎를 得한다 하면 此等을 如何히 說明하여야 可할가 次에 論究하면 倫理的 法則 無差別의 平面에서 愛가 有하며 差別에 由하여 發生할 만한 條件으로써 恭이 有하다 하니 故로 一切의 倫理的 法則은 愛의 觀念으로 演繹치 아님이 不可하니라. 만일 人이 人의 身을 見함을 己와 如히하며 人의 患을 見함을 己의 憂와 如히할 時는 誰가 人을 害하며 人을 賊할 念이 起할가. 그런데 論理의 綱領이 二가 有하니(一)人을 害할 念을 絶할 것 (二) 人의 急을 救하는 義가 存함 진실로 此法則이 有하면 天下-何時라도 爭亂의 事-決無할지니라.

大抵 人의 國을 伐하며 人의 君을 誅함은 是-그 國을 害함이 아니며 그 君을 憎함이 아니오. 오卽 天下의 害를 際코져 함이라. 更言하면 天下의 害를 加하는 者는 既히 社會의 根柢되는 無差別의 觀念에 背한 者임으로써 社會의 中에 存在치 못할 者이라. 故로 此를 討伐함은 人을 惡함이 아니오. 單히그 害를 除코져함이었다. 後世의 學者들은 墨子의 思想이 既히 此最高域에 達함을 不顧하고 惟其愛로써 差別의 愛만 高等이라 하야 墨子를 社會平等主義의 主唱者라 하야 絶對排斥하니 孟子와 如한 者-그一人이라. 故로 墨子를 指하야 曰無父無君은 是禽獸라 하였스니 吾人은 墨子를 爲하야 一言으로써 辯明치 아니치 못할지니 墨子曰『今天下之君子 忠實欲天下之富 而惡其貧 欲天下之治 而惡其亂 當兼相愛 交相利 此聖王之法 天下之治道也 不可不務爲也』라 하니 此 卽 兼愛는 先王으로 既히 自體된바를 云함이라. 墨子は 又曰『孝子之爲親度者 吾不識 孝子之爲親度者 亦欲人愛利其親者歟 抑亦欲人惡賊其親者歟』라 하였스니 此卽親을 愛하는 者는 또 他人의 親을 愛치아니치 못하겠다 함이로다. 然하면 墨子は 一步를 進하야 愛로 하여금 互相의 關係를 律하는 者로 認함과 共히 當時時勢緩急의 所在를 洞察한 者라 말미어 墨子の

墨子된 所以는 實로 此에 在하나니 卽 我家를 愛하면 隣家를 害치 아니할 것이요. 他人의 家를 愛하면 隣家를 害치안할지니 此則墨子の 根本的 觀念으로 所謂兼愛는 無差別平等이로다. 一言으로 蔽하면 墨子の 書を 讀한 者는 如何히 疎漏한 讀書家라도 倫理的 法則에 對하여 毫末도 儒敎와 異한 바-無함을 認定할지로다.

二, 曰利이니 墨子は 愛의 外에 大한 主義를 律示하였스니 此를 利라 한다. 利는 社會의 維持된바 基底니라. 墨子は 常히 愛利를 併稱提擧하여 曰愛之利之라한바 그 利라 함은 物質的 勢力에 不外하니라. 旣한바 物質的 勢力이 有한 故로 社會는 此로써 保持되나니 故로 此勢力은 그 殖増法을 謹치아님이不可하니 此를 誤할 時는 愈愈滅殺될 뿐이며, 此를 謹할 時는 愈愈増長할지니 人口의 繁殖과 生活의 潤澤은 全히 此에 在하니라. 然한 卽利란 者는 『上利乎天 中利乎鬼 下利乎人』이니 此를 増進함은 人生의 快樂을 進歩하고 人文의 進化를 助長케하는 者로다.

利의 觀念演繹 利로써 社會의 具體的 腦髓라 하고 聖人의 將勉할 處이라 하니 此로부터 種種의 結果가 伴生한다.

(一) 節葬 墨子曰 『古者聖賢節葬之法 衣三領足以朽肉 棺三寸 足以朽骨 掘穴深不通於泉 流不發洩則止』라 하다. 此는 實로 墨子が 薄喪을 主張한바 根本的 思이라. 此는 儒敎의 繁禮虛飾으로 當時葬禮가 侯王으로부터 庶民에 至히 넘우 驕奢에 流하여 衰亡에 入함을 見하고 慷慨悲憤하여 此言을 發함에 至함이며 그 外에도 薄葬을 主張한 理가 有하나 此에 畧한다. 또 墨子の 修身篇에 曰 『喪雖有體나 以哀爲本』이라 하니, 是 等의 點을 綜合하여 思考하여보면 墨子の 思想은 『禮與其奢也 寧儉 喪與其易也 寧戚』이란 孔子의 言과 一致하다. 말미어 墨子の 主張은 節葬이라 할가 망정 薄葬이라 함은 甚不可하다.

(二) 節用 墨子は 獨히 葬을 節케할뿐 만 아니라 一切社會에 利益이 有한 者면 此를 節케하고자 하였스니 曰 『古者之民始生也 處於丘陵 聖王爲之慮 使之掘穴以處 更進一步 使之營宮室而避風雨 使之清潔而行祭祀 此乃先王之爲民便利也 故聖王無利 不爲也』이라 하고 又曰 『無用의 道를 去하여 民利를 補하여야 天下의 大利』라 하였스니 是로 由하여 觀하면 經濟的 生産에 無用한 者는 一切此를 棄코져 하였도다.

(三) 非樂 先王이 音樂을 用함은 人心을 陶冶하여 天下로 하여곰 一治의 下에 歸케 하고저 目的함이어늘 後世 君王은 不然하여 自己의 業務를 廢하고 全히 音樂歌舞鐘鼓의 間에 放逸하니 此-墨子の 痛斥한바이며 獨君子에 對하여 其然할 뿐 아니라 男子는 音樂에 耽하여 畊作의 業을 怠하고 宮任의

務를 忘하며 女子는 音樂에 耽함으로써 織紵를 棄하고 桑茶를 排하며 말미어 鄭聲, 衛音과 如함은 風俗을 壞亂하고 人心을 腐爛케 함에 至하나니 是皆 音樂의 弊이라. 此-墨子の 最히 痛斥한 點이로다.

要컨대 愛利는 天의 本意라 할지니 天의 欲하는바는 오即 愛와 利-며 惡하는 바는 此에 反한 一切의 者-라. 何로써 그 然함을 知하는가? 天은 兼으로써 人을 愛하고 同時에 人을 利케함으로써 知하는도다. 故로써 人을 愛하고 人을 利케하는 者는 此에 반듯이 福을 與하고 人을 惡하고 人을 賊하는 者는 此에 반듯이 禍를 降하나니 此로써 觀하면 墨子에서 天의 存在를 證할바는 左와 如하다.

(一) 社會 全體로써 愛利를 受하는 事

(二) 賞罰을 正中히 하는事 이리케 墨子は 天을 證하야 此를 中國儒道の 本義와 合케 하얏스니, 墨子の 天은 頻히 正當하다. 孔子曰『惟天爲大 惟堯則之』라 함과 如히 墨子は 亦法儀란 一章을 設하야 天에 則할만한 法을 畧 闡發하사 從하는 者-法儀가 無지 못할지라. 然하면 何處에 何法할가 惟天이 有할뿐인바 天의 天된 德에 三이 有하니

(一) 行 廣하야 私가 無함

(二) 施 厚하야 德이 大함

(三) 明 久하야 不衰함 如斯한 普遍的 恒久的 光明적의 行은 吾人人類의 能할바-아니니 故로 聖王은 此를 則하였다 한다.

三, 曰非命說이니 吾人의 所行은 天意의 所在-며 天意의 所在는 天의 義의 所在라. 日常의 如何한 少事라도 天意에 從하야 動行치 安함이 不可하다. 世人의 或은 墨子로써 効利說이라 云하는 者-有하나 實際는 不然하다. 墨子의 有命을 排斥한 所以는 宇宙의 原理로써 愛利의 二를 立하고 此로부터 倫理的 法則及 社會의 習慣을 演釋하였스니 即 法則, 習慣의 兩者-原理의 必然함과 共히 必然이며 恒久的됨과 共히 恒久的인 此로써 그 行動을 一定의 準則한 바니라. 故로써 天命說은 是不可하도다. 오即 天意에 順한 者면 天이 必賞하고 不順한 者면 天이 此를 必罰할 뿐이다. 然한데 墨子の 非命說은 主要히 政治的 意味에 對함과 如하다. 무릇 有命을 執한 者의 言에 曰『命이 富하면 即 富하고 命이 貧하면 即 貧하며 命이 衆하면 天 衆하고 命이 寡하면 天 寡하며 命이 治하고 亂하면 天 治하고 亂하며 命이 壽하고 夭하면 天 壽하고 夭한다』하니 若此說로 民間에 盛케하면 百姓은 그 業을 勉치아니하며 百官은 그 職을 事치 아니 하고 拱手待坐하야 皆曰 命이라. 我가 如何히 措處하랴 하야 乃終 그 結果는 天下瘠貧하고 國家-崩壞하야 遂히 濟키 不能할 境에 至할지니 此-有命說의 害되는 所以라. 말미어 墨子は 極히 非命을

主唱한 바는 오即 倫理的 法則과 社會的 習慣에 依하여 行動케하고저 하였을 뿐이로다.

結論

墨子が 喪禮는 哀로써 本이라 言하며 或은 賢을 尙하고 士를 親함으로써 治國의 要라 云함과 如함은 毫末도 孔子와 異함이 無하다. 然則 墨子로 하여곰 孔子의 徒라 云하겠다 하노라. 淮南子曰『墨子學儒者 業受孔子之術 以爲其禮煩擾而不悅』이라 하였스니, 此로써 見하더라도 墨子の 說은 孔子와 類似하여 非疑의 餘地가 無하거늘 不幸히 孟子는 激烈排斥한바 墨子를 爲하여 어찌 痛惜타 안흐리오. 大抵孟子는 當時의 政治家니라 賢아서 社會를 運用左右코저 하여 東西에 狂奔한 者인바 老莊의 徒는 不然하여 世를 避하고 身을 善함으로써 自足한 一個의 哲學者며 隱君子일 것 뿐이니 孟子 等과 何等의 意味가 一致하랴.

丙 道家 (仙敎는 晉國時改名)

老子 (傳並書)

老子の 姓은 李요. 名은 耳요. 字는 伯陽이니 其耳가 漫으로써 輪이 無한 故로 世號를 聃이라 云하다. 史記에 據하면 楚의 苦縣人이니 今亳州谷陽縣人이라. 然則 老子는 江北人됨은 無疑하나 周의 守□室吏가 되어 國書을 監督할 詩에 孔子-禮를 來問하니라. 그리고 周室이 瓦解함과 共히 人民이 土崩함을 見하고 惘惘然不樂하여 吏를 棄하고 西散關에 入하니 關人尹喜-道를 問함에 對하여 드디어 道德五千餘言를 寫하여 주고 去하니라.

學說

孔子는 既定的된 禮에 由하여 社會를 經論코저 하고 老子는 人性的 自然에 任하여 天下를 治코저 하였나니, 孔老二子는 此點에서 大한 間隔이 生하니라. 孔子의 思想은 그 端을 社會的 倫理思想에 發하고 老子의 思想은 그 端을 非社會的 自然思潮에 發하였다. 그런데 老子와 孔子는 共히 그 思想의 端을 堯舜의 時로 發端하여 漸次下降하다가 二子에 至하여 遂히 大成하였음이 無疑하도다.

從來 老子學의 源淵에 關하여는 諸說이 不一하다. (一)은 曰周易에 本하였나니, 兗 前漢의 嚴遵 隋의 王績 宋의 邵康節 晁說之 物徂徠의 徒가 是-라. 그 根據한바는 老子의 思想과 易의 思想이 類似함으로써-라. (二)는 曰容成에 本하였다. 然이나 容成은 何許됨을 不知하겠도다. 呂賢列子 韓詩外傳 等이 各其說이 不一하니라. (三)은 曰史官에서 出하였나니, 此는 漢書 藝文志에 有한바『以爲歷記 成敗 存亡 禍福 古今之道然後 知秉要執本 清虛以自守 卑

弱以自持』라 하니 此說을 論한 史官은 何者됨을 不知할지로다. 夫魏晉의 際에 盛行한 清談者流는 皆虛無論의 實行者됨을 思하면 반듯이 本辯이 不誤하나라.

純正哲學 孔子가 道로써 先王의 制作한 禮라 함에 反하여 老子는 道로써 一定하고 名狀키 不可한 者-라 하였나니, 一定의 道라 指示하고 一定의 名으로써 聞知할만한 者는 決코 皆常道常名이 아니라 常道常名은 萬古不磨하는 者니라. 彼-名狀하여 得할만한 者는 決코 萬古不磨할 者-아니로다. 例하면 此를 美타할 時는 天下의 人을 舉하여 皆-美타할지라도 그 美는 不美에 對한 豫想的인 故로 決코 眞美가 아니며 此를 善타 云함도 亦然하니, 天下의 人이 皆善이라 할지라도 此善은 惡에 對한 善임으로써 決코 眞善이 아님이 明白하다 하나니, 老子的 此思想은 故 此를 指名하여 命名한 者로 他를 豫想하여 成하였다는 思想은 彼가 處世論과 用兵論의 根本思想이니라. 故로 老子的 道는 相對의 域을 超越한 絶對로써 毫末도 名狀키 不可한 者니라. 道는 如斯히 名狀키 不可하나 無치 아님이 아니라 故로 此를 形容하여 曰『道之爲物 惟恍惟惚 恍兮惚兮 其中有物 窈兮冥兮 其中有精 其精甚精 其中有信』이라 하였스니, 그 意의 所在를 察하건대 道는 一切萬物을 包含하였스나 그러나 規定한 者-아니라 함에 不外하도다.

老子는 道로써 靜的 虛的 또는 無的으로 寫象하였다. 何者오하면 道는 永久不變의 體로써 一切萬化를 能爲하나 究竟 그 徹迹을 見키 不可함으로써-며 又老子는 萬物體로써 虛靜하여 無한 者-라 하였스니, 故로 萬物로써 그 自然에 任할 時는 自然히 虛靜無에 復無할 者-라 하였스니 曰『致虛靜 守靜篤 萬物並作 吾以觀其後 夫物芸芸 咎歸其根 歸根曰靜 靜曰復命 復命曰常 常曰明』이라 하였다. 是則老子的 政治論及倫理論의 根本思想이니라.

實踐 哲學

倫理論 併政治論 太古純樸의 時는 道の 完全無缺히 社會에 實現된 時니라 人民은 何等の 知識이 無하되 그 生을 得하고 그 生을 終할뿐이다. 그 聖人이란 者-出하여 仁, 義, 忠, 信, 孝, 慈, 禮, 樂 等の 條目을 作하니 此에서 비릇 오民이 趨向할바를 知하고 諳아서 是非善惡의 別을 始判하나니 於是乎 不孝가 有하며 不忠이 有하며 不慈非體가 有하여 天下는 此로 由하여 亂하였다. 故로 曰『大道廢 仁義出 知慧出 有大僞 六親不和 有孝慈 國家混亂 有忠臣』이라 하고 又曰『夫體者 忠信之薄而亂之道也』라 하였다. 凡聖人의 建設한 此等名目은 皆知識에 關한 者로써 人民의 智를 斷絶하여 此를 愚게할 時는 自然히 孝慈忠信의 正에 復할지라 故로 曰『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民 民之難治 以其智力 以智治國 國之賊 不以智治國 國之福』이라 하고

又曰『絶聖棄知 民利百倍 絶仁棄義 民復孝慈 絶巧棄利 民復孝慈』라 하였나니 是 卽 政治와 倫理와의 密接關係한 所以로써 그의 唯一假定은 人性的 絶對善이니 말미어 人主의 注意할바는 오卽 人民의 意에 在한바 人意에 在한바를 不忤할 時는 곳 天下-無事하야 此를 無爲의 政이라 云한다.

政治論 并用兵論, 處世論

(一)政策論 老子曰『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라 하다. 此를 更演하면 卽 天下의 難事는 必히 易에서 成하고 天下의 大事는 必히 細에서 作한다 함이오. 又曰『將欲翁之必固張之 將欲弱之必固强之 將欲廢之必固興之』라 하니 此亦上述의 意에 不外한바 柔克勝剛의 說도 亦此에 本하다.

(二)用兵論 老子曰『以政治國 以奇用兵』이라 하고 又曰『用兵有言 吾不敢爲主爲客』이라 하니라.

(三)處世論 老子曰『天之道 其猶弓乎 高者, 抑之 下者舉之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 以奉有餘 不能損有餘 以奉天下 是以聖人爲而不恃 功成而不居 其不欲見賢』이라 하니 是卽彼-處世法의 要訣이라. 此를 어떤 方面으로부터 보면 禍福相緣의 說에 不外하도다.

要컨대 老子는 陰과 陽의 相伴함을 確認하고 此로써 政策, 用兵, 處世術을 成하였도다.

結論

老子的 根本原理는 卽 道-니 道는 絶對로써 一切를 司配하는 者라. 故로 國을 治하며 天下를 治하며 人民을 統함이 惟一道에 委任할 것 뿐이오. 知識과 如함은 一切此를 廢하여도 可할지로다. 然한데 絶對는 相對를 超越하고 相對는 現像界의 狀態-라. 相對界는 矛盾的 法則에 由하야 司配됨을 知할지니 此로써 政策, 用兵, 處世의 法을 演繹하였도다.

列子(傳併書)

列子の 名은 □冠-니 鄭人이라. 孔子死後七十二年(春秋戰國時)頃의 人이니 鄭에 居할 時에 人이 此를 鄭相子陽에게 其賢을 言한대 子陽이 官으로써 粟을 遺케 하였더니 列子-再拜하야 便者를 見하고 此를 辭한대 使者-不得已卽 還去하거늘 列子-內에 入한대 其妻-此를 見하고 謂曰『吾聞□니 有道者의 妻된 者는 皆逸樂을 得한다 하더니 今妾은 饑色이 有하거늘 幸히 鄭相으로부터 先生에게 食을 遺함에 先生은 不受하니 어찌 命이리오』한대 列子笑曰『今鄭相이 我를 自知의 先分이 無하고 한갓 人의 言으로 我에게 粟을 遺하니 彼-我를 罪함도 亦人의 言으로써 할지라 故로 吾-不受하였다』云하였스니 此一言一行으로써 能히 그 人格을 可知하겠도다. 그리고 鄭에 居한지 四十年에 鄭國의 饑함에 及하야 衛에 往하였다가 又齊에 去한 後其終한바는

不知하겠도다.

哲學

生成論 道는 無形이니 無形이라 함은 實體가 有함이 아니오. 空虛한 義니라. 如斯히 空虛한 者로써 一切萬物을 如何히 生成하였는가? 列子-此에 至하야 有와 無의 間에 種種의 階程을 設하야 顯著히 懸隔한 二概念을 接近케 하였스니 無로부터 有에 進하는 順序를 太易, 太初, 太始, 太素라 하니라. 太易이라 함은 아即 氣를 不見한 者요. 太初는 氣의 始요. 太始는 形의 始며 太素는 氣의 始라. 氣形質만 具하고 아即 離치안한 者를 曰運淪이라 하니니 混淪이라 함은 萬物이 相渾하야 離치 안한 狀態니라. 此는 卽『欲見而不見, 欲聽而無聽, 欲循而不得』이라하니 故로 曰易이라. 易은 形이 埒치 아니한 者를 謂함이라. 列子가 更히 順序를 示하야 曰『易變而爲一 一變而爲七 七變而爲九』라 하니 此乃萬物을 生成한바의 原理가 具備한 者-라. 然後에 萬物이 生成되는도다. 然한데 萬物의 生成은 各各時間, 空間을 特別히 하야 各自定分이 有하니 天도 短한 所-有하며 地도 長한 所-有하고 生覆한 者는 形載할 事-不能하고 形載한 者는 教化할 事-不能하니 天地의 道-陽이 아니면 陰이 오. 聖人의 教-仁이 아니면 義-며 萬物의 宜-柔가 아니면 剛이라. 다 그의 宣한바에 隨하야 位한바를 出기 不能하니라.

定命論 萬物의 生成은 如斯히 道에 由하야 司配되며 各各自己의 定分이 有하니 是-偶然한 者-아니오. 必然의이라. 是에 對하야 萬物의 命은 一定하다. 謂치 안할 수 업다. 例하면 生死와 如함은 最明白한 事證됨에 足하도다. 曰『生者理之必終者也 終者不得不終 亦知生者之不得生 而欲恒其生 晝其終惑於類也』라 하니 此思想을 推究하면 列子는 絶對的 定論을 主張한 者라. 詳言하면 人生의 意志에 出한 者라도 皆是天命의 秘定이라. 云한 事니라. 卽『鮑叔非能舉賢不得不舉 小白非能用讎不得不用』이라. 云함과 如히 人爲로써 自然의 中에 在하다 看做한 것이라. 故로 彼天瑞篇에 不可思議的 化生을 說하고『萬物皆出於機, 皆入於機』의 一語로 此를 結하니라.

有의 妄見 一切萬物은 如斯히 絶對에 由하야 必然的으로 司配된 者인 故로 此方面으로부터 見하면 宇宙의 進動은 滔滔하야 流水의 長去不盡함과 如하니 스스로 其 然할뿐이다. 自然其者는 無差別平等으로 彼此의 別을 立키 不可하도다. 故로 宇宙過程中에서는 但我的이 無하고 自然히 될뿐이라. 舜蒸問答에 託하야 此意를 明케하니 曰『舜問于蒸曰道可得而有乎아曰 汝身이 非汝有也어니 汝何得有爲道리오. 舜이 曰吾身이 非吾身면 孰有之哉리오. 曰是-天地之委形也며 生非汝有라. 是天地之委和也며 性命이 非汝有라. 是天地之委順也-니 故로 行不知所住하며 處不知所持-며 食不知所以는 卽 天地-强陰陽

也-니 又胡可得而有耶아』 하엿도다. 말미어 列子는 自然物으로써 自己의 有라 하는 者에 對하야 盜라 指目하엿다.

修身論 (修爲의 目的은 絶對)

此는 自然과 人爲와를 對立케한 妄見을 劈破하야 此를 모다 同一한 自然에 歸케함이니 修身第一의 工夫는 我見을 去함에 在하다. 何者오 하면 彼我의 別이 無함으로써-라. 故로 曰『信命者於彼 我無二心』 이라하고 『列子學事九年 橫心之所念 橫口之所言 亦不知我之是非利害歟 亦不知彼之是非利害歟 外內進矣而後 眼如耳 耳如鼻 鼻如口 無不同』 이라 하엿스니 列子의 思想이라 할바는 卽 身絶對的이라. 此-老子와 大同小異한 點이라. 老子도 亦自然에 一任함으로써 適當타 하엿스나 然이나 此는 人性의 善으로써 假定한 論이라. 故로 그의 教議는 社會的이라. 然한데 列子의 唱導한 바는 全혀 物理的 自然에 放任코저 함으로 社會的은 아니로다. 卽 自己一身을 絶對케함에 在하니 此點에서 楊子와 異한바니라. 楊子는 自己一身을 快樂케하고저 하고 列子는 卽 身絶對로써 理想한 者니라.

修爲의 工夫 此域에 到達함은 卽 無心으로써 唯一의 工夫를 삼앗다. 何也오. 曰海上의 人이 漚鳥를 好하는 者-有하야 每朝海上에 往하야 漚鳥를 從遊할새 漚鳥의 近至者-其算이 無하더니 一日은 父命으로 此를 捕하라고 海上에 往하엿던바 一羽의 漚鳥도 近至하는 者-無하니라. 此 卽 捕할 意를 持한 故로 自然造物이 咸應함이니 意가 無하면 人과 物이自 然할것뿐이다, 此我が 無心悠然히 自然에 一任함은 自然의 法則에 逆함이 無함으로써라. 列子工夫의 要는 此에 不外하다. 그리고 列子曰『可以生而生天福也 可以死而死天福也』라 하니 此로써 能히 그 根本思想의 在한바를 見하겟도다.

結論

要컨대 列子는 宇宙의 必然進動을 假定하고 修身의 目的은 唯一心으로써 絶對無我的 域에 至케한 者니 그의 定命說을 論함에 楊朱와 如함은 大히 注意할만하니라. 列子後數十年을 經하야 莊子가 出하며 老子의 矛盾的 觀念을 開展함으로써 大히 中華哲學의 光彩를 放하니라.

莊子 (傳並書)

莊子는 宋의 蒙人이라. 孟子와 畧同時人이니 卽 齊宣王, 梁惠王時人이라. 其節이 清雅하야 時君의 寵하는바를 受하야 就仕하기를 不屑히 여겟도다. 故로 其言에 曰『我が 寧히 貧賤汚瀆의 中에 遊戲自快할저언당 國한 者의 霸絆을 受치안켓다』 하고 終乃仕치 안하엿스나 其終한 바를 不知하니라. 莊子의 著書三十二篇이 只今遺傳하엿는데 李虎의 世에 至하야 莊子의 書로써 南

華眞經이라 名하니라.

論理學

(一)一切의 觀念은 規定을 豫想치 아니한 者-無하니 規定이라함은 或一物을 特히 抽想한 者로써 我가 主體의 作用에 屬한 者라. 此를 一層具體的으로 適用할 時는 左의 四對法則을 出하나니

(一)左右 (二)論理 (三)分辨 (四)競爭 莊子是 此를 八德이라 名하였나니 凡天下彼此의 觀念은 此中에 總攝할 만하니라.

(二)天下의 物이 苟히 規定된 時는 他的 否定과 矛盾的으로 互相對立함으로써 同一의 規定 卽 物을 二方面으로부터 觀한다. 莊子是 朝三暮四의 理로써 此觀念을 明케하였스니 曰『狙公이 橡子를 狙에게 分하여 曰朝三暮四하리라 한 대 衆狙-皆怒하거늘 狙公이 曰然하면 朝四暮三하리라 한 卽 衆狙-皆喜하더라. 名實이 不偉하거늘 一은 喜하고 一은 怒함은 矛盾의 一方을 將하야 是라 함에 由한 者-니라』

(三)此矛盾의 相對를 超越한 者를 道라 하니 道는 絶對 卽 無差別平 等이라. 故로 四『彼是莫得其偶 謂之道』라 하니라.

(四)莊子是 此矛盾相對의 觀念을 夢에 應用하여써 一種의 人生觀을 成하니 曰『昔者莊周의 夢에 스스로 蝴蝶이 되어 翺翺然自適하야 그 愉快의 狀態를 形言키 難한바 周-스스로 周된 事를 忘却하였더니 俄然히 覺하매 卽 遽遽然히 周-러라. 然則周의 夢에 蝴蝶이 有하였는지 或은 蝴蝶의 夢에 周가 有하였는지 人生은 畢竟一場春夢』이라하고 又『覺과 夢은 互相豫想하는 者-라 覺한 後에 비릇오 其 夢됨을 知하나니 今則覺이라 云하는 者도 亦更히 夢이 아닌 줄을 豈知리오. 말미어 死生은 相豫想하는 者-라. 今生時로써 覺이라함은 生時에 對한 夜夢 等を 經驗함으로써니 卽 生時에 對한 死로써 大覺이라云치 아니치 못하겟다』

修身論

修身의 目的은 絶對定住함에 在하다. 詳言하면 爲先絶對는 相對를 超越한 者임을 知하야 心意를 此域에 定住케함에 在하니라. 心意를 그 域에 定住한 者를 曰達人, 眞人或은 至人이라하야 그 德이 弘大無量하다. 莊子是 明白히 心과 形과를 區別하니 曰『德有所長 形有所忘 修身之目的 在於心意 不問其形之如何』라 하다. 心意가 絶對의 域에 定住한 人은 그 行動이 亦是無意識的 卽 自然으로 理法에 合하는 者-로다.

結論

莊子是 鵬大의 筆을 揮하야 逍遙一篇을 稿하니 主眼할바는 卽 大觀의 二字에 在하다. 一方으로는 莊子의 學理를 可知하겟고 一方으로는 그 學風을

何할만함으로 此에 論하여 結論을 換하노라.

凡喁喁然하여 雜處不一한 人類社會의 事는 皆是比較相對의 域에 在하니 斥鷃이 枝에 遷하며 鳩鷺이 葉에 隱한 者或은 數尺을 飛하고 或은 三尺을 翔하여 喈喈然相悅하고 惆惆然相悲하니 人類의 行動云爲가 皆此類와 同할뿐 이다. 然則 吾人은 맛당히 大鵬九萬里의 高에 上할지라. 背에 青霄를 上하고 行動自在치 아님이 不可하니 所謂『乘天地之正 而御六氣之辨 以遊無窮者』 卽 是-라. 此 卽 絶對의 域으로써 毫末도 人實에 對함과 如한 規定의 範圍에 陷치 아니할지로다.

丁 楊家

楊子(傳並書)

楊子의 名은 朱라. 其 傳은 末詳하나 孟子-楊墨을 拒함으로써 畢世의 務함 을 見하면 當時楊子의 說이 天下에 遍滿하여 黨派를 成함을 知得할지로다. 實하여 楊子의 年代는 孟子에 先하고 墨子에 稍後임이 明白하도다. 淮南子- 楊子를 討論하여 曰全性保眞不以物累形楊子之所立也라 하니 故로 中華哲學 史에 闕키 不可하노라.

哲學

萬物定命論 凡一切現象은 自生自滅하는 者-아니다. 換言하면 萬物의 生死 存亡은 自己의 意思에 由하여 左右할 者-아니오. 皆天地自然에 關係될뿐인 故로 曰『賢愚貴賤 非所能也 臭腐消滅 亦非所能也 故生非所生 死非所死 賢 非所賢 愚非所愚 貴非所貴 賤非所賤 然而萬物 齊生齊死 齊賢齊愚 齊貴齊賤 十年亦死 百年亦死』라 한다. 然한데 萬物은 그 生存하는 間에만 彼此서로 區別할 者-아니오. 그 死함에 至하얀 皆是土壤에 歸함은 一이니라. 故로 曰 『生則堯舜 死則腐骨 生則桀紂 死則腐骨一矣』라 하니 萬物은 差別로써 生 存하고 亦自然한 一定의 運命이 有하니 此則孟子에게서 問曰『有人於此 貴 生愛身 以斷不死可乎 曰現無不死 以斷久生可乎 現無久生 生非貴之所能存 且 非愛之所能厚也』-라 하니 是-楊子의 萬物定命論이니라.

楊子는 萬物定命의 原因으로써 神에 歸치 아니하고 오즉 自然觀을 定함에 서 不外하다. 然則 彼가 萬物定命의 根本思想으로부터 演繹하여 得한 者는 如何한가?

(一)快樂主義 人生은 朝露와 如하여 死는 皆一般이라. 堯舜과 如한 聖도 死하면 卽 腐敗하고 桀紂와 如한 惡도 死하면 卽 腐敗하여 究竟土壤을 成하 나니 此 卽 萬物의 定命으로부터 來한 一種의 厭世의 觀念에서 不外하니 此 觀念의 反動으로써 快樂主義가 出來하니라. 말미어 楊子는 徹頭徹尾히 厭世

的이라. 其 言에 曰『世事苦樂 古猶今也 變易治亂 古猶今也 既聞之矣 既見之矣 百年猶厭其多 況久生之苦也』리오 하나라.

(二)自殺의 害 萬物이 既히 一定의 運命이 有하니 此運命을 全하는 者는 吾人의 本務라. 楊子曰『生則廢而任之 究其所欲 以俟於死 將死則廢而任之 究其所之 以放於盡 無不廢 無不任 何遽遲速乎其間乎』하나라.

(三)肉體의客觀 萬物定命論의 結果로써 楊子는 又그 肉體를 客觀으로 視한다. 故로 曰『身非我有也』라 하였스니 如斯히 肉體를 無視한 結果로써 畢竟 葬禮를 輕히 함에 至하다 然하나 亦一方으로는 人間의 競爭은 腕力이 아니오. 반듯이 智力인 所以를 看破하였슴으로 그 言에 云하되『智之所貴 存我爲貴 力之所賤 侵物爲賤』이라 함과 共히 智力에 由하야 惟自我의 存在를 圖코저하였도다.

結論

楊子의 根本思想은 隱退主義 (個人主義) -라. 然이나 그 說이 遂히 老子의 高遠에 及치 못하고 오즉 去名無憂(某라는 名을 不取)를 主張한 者니라. 直接으로 社會主義와는 衝突되어 卽 個人的 獨立主義를 唱하고 又個人的 快樂主義를 主張한 者-니 是-墨子와 正反對한바로다.

.....(楊子篇完).....